

경제

‘지역제품 사주기’ 썰렁한 결과

금호타이어 올 임협안 통과

노조 찬반투표 54% 찬성 ... “광주공장 고부가 제품 거점화”

광주시교육청 400억원대 학교 에어컨 사업

광주서 만든 삼성 하우젠 고작 1% 더 팔아

지역제품 사주기운동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던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은 확실한 승리를 낚지 못했고, 국내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LG전자는 광주에서만 한 발 물러서야 했다.

지역제품 사주기운동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던 삼성전자와 캐리어 등은 확실한 승리를 낚지 못했고, 국내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LG전자는 광주에서만 한 발 물러서야 했다.

53%인 32개교에 63억3천8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52개 공립학교(35%)에 109억2천만원, 30개 사립학교(46%)에 54억7천4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캐리어는 공립 45개교(32%), 사립 2개교(1%) 등 모두 47개교(23%)에 자사 냉난방기를 설치키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립학교에서, LG전자는 공립학교에서 강세를 보인 셈이다. 계약금액으로 보면 최종 승자는 삼성이었지만 아슬아슬했던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캐리어가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전용 TV홈쇼핑 신설

방통위, 사업자 선정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 채널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함께 신규 TV홈쇼핑 사업자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와 따라 방통위는 이달 중 신규 종편 및 추가 보도채널 개수와 선정 기준, 지원자격 등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 홈쇼핑채널 사업자 선정 계획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업자 선정이 종편 및 보도, 홈쇼핑 등 범주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추가 홈쇼핑채널은 중소기업 전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관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 시장에 뛰어들기를 하고 최근 TV홈쇼핑추진위원회 구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시장과열 등을 우려하며 6번째 홈쇼핑이 될 추가 사업자 선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만의 자동차 ‘쏘울 쇼’

쏘울 자동차들이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KT가 SHOW 1천만 고객 돌파를 기념해 지난 7월 4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 ‘내가 디자인한 나만의 자동차’ 이벤트 공모에 선정된 SHOW DIY

“소유자 100% 동의해야 시공사 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사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방식의 경우 소유자의 100%가 동의한 후에 경표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

중전에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건설사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로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가 지연된 경우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부과한 것에서 공인중개사만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꾸고, 주택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개업소의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임금인상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했다.

금호타이어는 13일 “노사 합의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안에 대해 노조원들의 찬반을 묻은 결과 54.2%가 찬성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1~12일 이틀동안 광주·곡성·광택공장 조합원 3천8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모두 3천680명이 참여해 1천995명(54.2%)이 찬성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009년 임금 기본급은 동결하고 ▲2008년 추가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되, 2009년 성과급 보류하게 된다.

파업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정리해고 예정자 통보도 급여를 상시하게 됐다. 노사는 조만간 조인식을 갖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노조 내 반발 기류 때문에 사측 제시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수용 여부는 물론 현 집행부를 향한 사실상 신임 투표 성격이 짙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노조의 경우 정리해고를 막아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사측은 생산 차질 등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금호타이어 기철 상무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노사 관계 정립이라는 자산을 남기게 됐다”면서 “노사가 협력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질금리 두달연속 ‘플러스’

7월에도 0.9% ... ‘마이너스’ 시대 졸업

올해 들어 줄곧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뚜렷하게 돌아섰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실질금리(신규 취급 기준)는 7월 0.9%로 6월 0.5%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7월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는 2.9%였다. 이는 은행이 제시하는 명목금리로 여기에 이자소득세(세율 15.4%)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6%)을 빼고 0.9%가량 플러스가 났다는 의미다.

실질금리는 지난해 중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곧바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으로 물가가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7월 비은행 가계대출 1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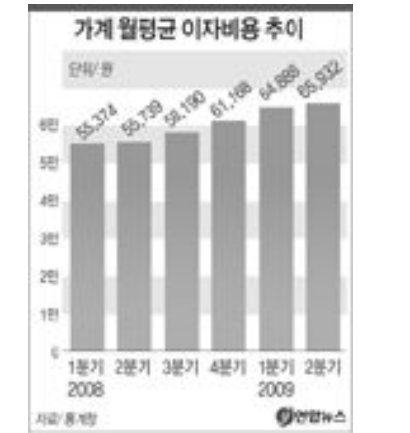
전달보다 1조7천억 늘어 ... 은행권은 증가세 둔화

지난 7월중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10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8천458억원으로 전월의 528조4천552억원보다 4조3천906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액은 전월의 5조4천788억원

보다 둔화된 것이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말 현재 129조8천657억원으로 전월의 128조1천334억원보다 1조7천328억원이 늘었다. 이 증가액은 작년 9월의 1조8천억원이후 최대다. 신한,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119조6천597억원에서 121조4천199억원으로 1조7천422억원 늘었고 상호저축은행은 6조7천274억



로또복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Shows lottery results for the 354th draw.

팝콘복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Shows lottery results for the 177th draw.

Financial summary box with icons and text: 코스피지수 1,651.70 (+42.80), 코스닥지수 528.26 (+9.44), 금리 (국고채 3년) 4.49% (+0.19), 원·달러 환율 1,221.80원 (-19.70).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셋코리아' (Asset Korea)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